



#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遺子滿籛金 유자만영금	지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택침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 광이의 함성(喊聲)이 비슬산(琵琶山)을 깨우다 -광이의 날, 미래를 위한 어울림-



광이의 날, 미래를 위한 어울림 개막식

2023년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친 「광이의 날, 제26차 광주이씨 청장년연합대회」가 “미래를 위한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0 비슬산 호텔 아젤리아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2년 단위 격년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청장년회에서 순회하며 주최하고 있는, 광이 종인들의 가장 큰 행사이다. 금년은 광주이씨 대종회가 후원하고 청장년연합회가 주최, 대구경북청장년회가 주관하였다. 청장년연합대회는 시조 참판공(諱 唐)의 묘소가 있는 영천 추원재에서 대구청년회 주관으로, 1990년 9월 8일 1차 연합대회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지난 대회를 쉬고, 이번 대회는 제26차를 맞게 되었으며, 청장년연합대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廣李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된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하다.

이날 전국에서 종인들을 태운 임대버스와 승용차들이, 오후가 되어 행사장에 속속 도착하였다. 일찍 도착한 종인들은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집행부가 마련한 접수대에서 숙소의 배정과 유니폼 등 선물을 받아들였다. 정식 행사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종인들은, 삼삼오오 유가사(瑜伽寺), 비슬산(琵琶山) 치유(治癒)의 숲과 자연

휴양림을 찾아 도시생활에 지친 마음을 정화하였다. 3시부터 행사 운동장에서는 족구, 신발 멀리던지기 등 경기가 시작되고, 16시 30분부터는 식전 공연으로 국악과 난타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호텔 내 대회의실에서는 유·청소년 시청각 보학시청에 이어 보학퀴즈 대회가 있었다. 유·청소년들은 선대조들의 행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진 퀴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우리 廣李의 뿌리를, 자신만만한 퀴즈 풀이로 뽑내었다. 아직 해는 떨어지지 않았으나, 푸짐한 저녁 먹거리는 종인들의 배를 가득 채워주었다. 19시부터 시작된 메인 행사는 각 지역 청장년회 회장 및 기수단의 입장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친교의 밤, 초대 가수 및 회원 노래자랑으로 흥을 한껏 북돋웠다.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뽑기에서는, 흑시나 접수번호가 뽑히려나 대화들을 멈추고, 귀 기울이며 기대하기도 하였다. 23시가 되어서야 끝난 이날의 행사는, 각자 배정된 숙소로 피곤한 몸을 이동하면서 막을 내렸다. 2일 차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상쾌한 인사와 더불어, 아쉬운 이야기 속에 아침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친 종인들은 2년 후를 기약하며, 아쉬운 26차 「廣李의 날」 행사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각자 타고 왔던 운송수단에 몸

을 실어 귀가 길에 올랐다. 귀가하는 길은 인솔자들이 준비한 관광지를 찾아 쉬엄 쉬엄 구경도 하였다. 서울에서 참여했던 종인들은 마침 상경 길가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기도 하고, 국내 서원 중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곳 중의 하나인, 한훤당 김굉필 선생 배향도 동서원에 들러,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선현(先賢)의 숨결을 느끼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는, 많은 종인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개최되었다. 항상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많은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행사를 함에 있어 주최측 입장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의 기분과 입맛에 맞도록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의 종인들이 참가하는 행사일수록 더욱 그렇다. 오직 참가자들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는 중요하다. 오랜만에 만난 백대지친들과의 대화와 하룻밤이라도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다음 행사에 더 많은 기대를 해본다. 본 행사를 주최한 청장년연합회와 주관한 대구경북청장년연합회의 고생과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광이를 이끌어가는 청장년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격려사]

한마음 대축제 「廣李의 날」 을 축하하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종회 회장 柱榮입니다.

오늘은 멀리 굽이 굽이 흐르는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알아내고,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비슬산 품속에서, 광주이씨 종인들이 화합과 백대지친의 결의를 다지는 한마음 대축제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청장년 연합회 상철 회장을 비롯한 집행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회는 청장년연합회가 주관하여, 2년마다 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난 대회는 아쉽게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재난의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 모두의

삶이 평상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행사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廣李의 날」 행사로 명칭이 바뀌어, 더욱 성대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대종회는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과 계획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대회는 광주이씨 종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새로운 시작의 발로이며, 우리 광이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행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문중은 빛나는 명예와 자긍심을 키우고, 친목과 화합으로 더욱 돈독히 쌓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청장년연합회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청장년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빛나는 서업을 이룬 廣州 李門」

의 후예로서, 명문가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번 행사가 훌륭한 선조님을 우러러 공경하고, 우리 광주이씨 일가들이 서로서로 이해와 사랑을 높여가는, 소중한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정성껏 마련하신 아름다운 이곳에서, 좋은 추억 담아가시길 바라며, 일상과 한걸음 떨어진 자연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끈끈한 혈연의 정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26차 청장년연합대회 「廣李의 날」을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26

광주이씨 대종회 회장 柱榮

[대회사]



안녕하십니까 제26차 청장년 연합대회에 참석하신 회원과 가족 여러분!

대종회 주영 회장님과 임원님, 각 지파 종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래를 위한 어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廣李의 날」로 정하여 한자리에 앉아, 백대지친을 실천하는 모습을, 광주이씨 700년 역사의 뿌리가 숨 쉬고 있는 영천 광릉골 인근 비슬산 자락에서, 원근 지역의 많은 종친과 가족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연합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6차 연합대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역병으로 개최하지 못하였다가, 4년 만

에 개최하게 되었으며, 특히 「廣李의 날」로 정하여 종친 어른과 가족들께서 함께하는 광주이씨 최대의 모임으로서,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 친교의 장이 되어, 청장년연합대회의 위상을 높이며, 청장년연합회가 미래 세대들에게 세대간 연결의 고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25차 대회까지는 청장년연합회 회원들 간에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였다면, 앞으로는 청장년회를 넘어 광이 전 종인들의 함께하는 잔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종회 주영 회장님과 임원님, 각 지파 종회장님 그리고 종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참여로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욱 발전된 「광이의 날」 연합대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백대지친을 바탕으로

로 승조돈목의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보학과 행사를 통해 광주이씨의 미래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속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동방의 갑족으로서 명예와 긍지, 자존심을 고취시켜 지켜 나아가, 선조님의 유덕을 더욱 빛낼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하신 대구·경북 청장년 회원 여러분과 호종 연합대회 준비위원장, 연합회 임원 여러분에게 그 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행사에 모두가 즐거운 추억과 행복을 가슴에 담으시고, 참여하신 모든 종친과 회원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대회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6일

광주이씨 청장년연합회 회장 상철

지파종회 소식

충희공 증회

충희공(諱 仁孫) 서세 560주기 불천위제 봉행

충희공증회(회장 경래)에서는 2023년 8월 28일(월) 충희공(忠僖公, 諱 仁孫) 서세(逝世) 560주기 불천위제(不遷位祭)를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

왕면 신지리 소재 충희공 재실(崇慕齋)에서 봉행하였다. 이날 충희공증회 경래 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주홍 재무이사, 관찰사공증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종성 부회장,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좌의공파종회 충교 회장,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충희공증회 용식 전 회장, 대종회 결재 전 총무이사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승재 총무의 신병으로 인해,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

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 경래 회장 인사, 대종회 주영 회장 인사, 관찰사공증회 재석 회장의 불천



충희공 휘 인손 선조 불천위제 봉행

위제에 즈음한 메시지가 있었다. 이 밖에도 총회 공 선조행적은 문수 총무가 소개하였다. 경래 회장은 인사에서 “광주인의 날 행사로 인하여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여독이 채 풀리지도 않으셨을 텐데, 이곳 멀리까지 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오늘 만큼은 총회공 선조님을 기리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례에 임해 주

실 것과, 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실 것을 당부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광릉부원군파총회 문수 총무가 총회공 선조님 연호가 담긴 간지를 제작하여 비치했다고 소개하고, 참석자 모두 큰 박수갈채로 답례하였다. 제례의 분정은 초헌례 경래 회장, 아헌례 참판공파총회 선래 회장, 종헌례에는 광릉부원군파총회 봉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집

례에는 총회공 종회 전 회장 대행 종성, 축에는 광릉부원군파 만재 부회장, 집사에는 종덕, 근환, 영래, 종길 현종이 맡아 수고하였다. 끝으로 향축대를 봉헌해 주신 지파 총회 및 각 공계(公系)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행적은 생략한다>  
- 총회공 종회 총무 승재 기 -

### 광릉부원군파총회

#### ■ 광릉부원군파 종인 한마음 축제 개최 예정

광릉부원군파 총회(회장 봉수)에서는 제5회 광릉부원군파 종인 화합 한마당 축제를 2023년 10월 12일(목)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미루어 왔던 대회를 4년여 만에 개최하게 된 것이다. 축제는 광릉부원군 파조님을 송조하

고, 종친 간 돈목과 화합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참석 대상은 부원군파 종인이라면 성별 관계없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종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특히 6개 공계(公系) 총회에서는 홍보와 큰 관심을 갖고, 대회 성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지명된 각 공계 총회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전한공 광명 총회, \* 김포 검단 이언공 총회, \* 광주 대쌍 총회, \* 부제학공 안성 총회, \* 대전 해

주목사공 총회, \* 태안 포천 별좌 총회  
■ 일시 : 2023년 10월 12일(목요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만나 뷔페 하우스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4-1번지(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1번 출구 길동 방향 50미터 지점  
■ 문의사항 : 총무 문수 02) 3426 - 1096  
■ 팩스 02) 3426 - 5058  
■ 모바일 010-2735-1644

#### ■ 광주 대쌍총회 2023년도 정기 총회 개최

경기도 광주 광릉부원군파 대쌍총회(회장 주신)에서는 2023년 8월 15일(화) 제64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주신 회장을 비롯해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원을 이루었다. 이날 주신 회장은 인사에서 꾀통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여 주신 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총회 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인사하였다. 회의 진행은 식순에 의해서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국민의례, 회장 인사, 감사보고, 부의 안전으로 2022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 승인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이 상정되어 별 이견 없이 통과 되었다. 기타 사항으로 총회 현안 사안 설명이 있었으며, 그리고 지난 7월 23일 둔촌 선생 불천위제에 즈음해서, 효열인으로 선정된 지수 현종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이날 정기 총회를 종료하였다. 늘 음지에서 수고가 많은 집행부에 성원을 보낸다.

- 광릉부원군파 총회 총무 문수 황 -



광릉부원군파 대쌍총회 정기총회 개최

### 문경공파총회

#### ■ 문경공파총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문경공파총회(회장 경수)에서는 8월 17일, 사무실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문경공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하여, 각 지파 총회 내빈을 초대한 가운데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문경공파총회는 1933년도에 문경공파 승덕재 공계 용욱 현종이 제1대 도유사로 취임하여, 정식으로 총회가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약 9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도, 변변한 자체 사무실 없이 총회 활동을 해왔다.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사무실은 1985년경에 탄수 공계 종수 도유사가 취임하면서, 본인 회사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췌서울주철 건물에 사무실 한 칸을 내어주어서, 총회 활동의 모습을 갖추었다. 두 번째는 1990년경에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대총회 별관 건물로 이전 하였고, 세 번째는 대총회가 매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관훈동 현 대총회 본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략 2002년 경에 수송동 건물로 문경공파총회가 이전하였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대총회에서 수송동 건물을 매각함에 따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새로운 사무실을 구입하여 이전하게 되었다.

이날 방문해주신 내빈으로는 대총회 용두 상임 부회장, 총회공종회 경래 회장, 광릉부원군파총회 봉수 회장, 광원군파총회 용철 회장, 좌의정공파총회 종교 회장, 광천부원군파총회 성호 회장을 대신해서 종성 부회장이 참석하였고, 총회공종회 및 5군 지파 총회 임원 외 문경공 본손 50여 명이 참석하여 사무실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경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 문경공파총회 초기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승덕재공계 삼영화학 종환 회장(전 대총회 도유사)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동고상공계 종욱(전 대총회 도유사),

종혁 회장, 탄수공계 (췌서울주철 종수 회장 등 선대 회장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제 문경공파 총회는 사무실 마련을 계기로, 종원 간 화합하고 단합하며, 또한 대총회와 지파 총회와도 소통에 매진하겠다 ”고 하였다. 이어서 문경공파총회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하는 고유제 행사에서는, 떡과 과일을 정성껏 진설하고 경수 회장, 승덕재공종회 상훈 회장, 양호당공종회 화래 부회장, 임원진, 원로 종인 등 내빈과 대총회 용두 상임부회장 및 5군 회장 등 많은 참석자들이 헌작 및 찬조금을 봉헌해 주었다. 헌작 및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불어 화합을 보내주시는 총회 및 종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린다.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마친 뒤에는 뒤풀이와 회식이 이어졌다. 이제 광주이씨 문경공파총회는 새 보금자리 마련을 계기로 백대지친으로 화합하고, 덕을 심고 인을 펼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도록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 새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가산하우스디 와이즈타워 201호  
- 사무실 일반전화번호 : 02) 6291-1100  
- 사무실 Fax번호 : 02) 6291-1101  
- 문경공파총회 총무 종민 기



문경공파총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 ■ 동고상공(諱 俊慶) 서세 451주기 불천위제 봉행

문경공파종회 산하 동고종회(종회장 근배)는 광주이씨 선대조 중에서 유일하게 종묘(宗廟) 선조대왕 묘정(廟廷)에 배향(配享)되어 계신 충정공(忠正公) 동고상공(東阜相公 諱 俊慶)의 불천위제(不遷位祭)를 8월 22일(음 7월 7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구정승골 충정사(忠正祠)에서 봉행하였다. 이날은 비가 예보되어 있었으나, 선조님의 음덕으로 다소 무더웠지만, 맑은 날씨 속에서 불천위제를 봉행할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충회 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종성 부회장,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송덕재공종회 상훈 종회장, 양호당공종회 화래 부회장, 그 외에도 각 지파종회 임원 등 직·방손 6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

하고, 경건하게 제례를 봉행하였다. 제례 봉행에 앞서 근배 종회장은 "불순한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고 했고, 대종회 주영 회장은 축사에서 "광주이씨 문중에서 자랑스러운 동고상공의 불천위제에 참석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불천위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광주이씨 문중의 큰 인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그 업적을 기리고, 그 뜻을 면면히 이어 나아가, 우리 광주이씨 문중의 후손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큰 인물로 성장하여, 우리 문중을 빛내는 그런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고 하였다. 제례의 분정에는 초헌에 동고종회 근배 회장, 아헌에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종헌에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집례에는 문경공파종회 영재 감사, 축에는 종길, 집사에는 승수, 영희, 양수, 종덕 현종이 맡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하였다. 제례를 마친 후에는 양수역 근처에 있는 예약된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식사와 주류를 하면서 종원간 덕담을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며, 종회 발전

을 위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즐겁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날의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례에 직접 참석하여 향축금을 헌작하신 대종회, 충회 공종회, 관찰사공종회, 광릉부원군파종회, 광천부원군파종회, 광원군파종회, 좌의정공파종회, 좌통례공파종회, 송덕재공종회, 현감공종회를 비롯하여 광원군파 화수회 점식 회장, 양호당공종회 화래 부회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문경공파 동고종회 총무 응재 기



동고상공 451주기 불천위제 봉행

### ■ 문경공파 양호당계 장령공 소종중 시조 묘소 참배

문경공파 양호당공(諱 德悅)계 장령공(諱 必茂) 소종중(小宗中)과 남원종친회에서는 2023년 8월 15일(토). 경북 영천시 북안면에 영면해 계시는 시조 판서공(諱 唐) 묘소에 참배를 드렸다. 장



령공의 후손들은 주로 남원, 하동, 보성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날 종인 40여 명은 전세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전 11시경 묘역에 도착하였다. 묘역에는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택동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경북 칠곡거주 종인들이, 중요한 일정한 광복절 칠곡군 독립유공자 관련 행사가 있음에도, 우리 일행을 위해 참석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묘역에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묘역에 도착하자마자 성묘순례 일행은 간단한 제수를 진설하고 참배를 마친 뒤, 택동 위원장으로부터 묘소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최사간공(諱 元道)의 모친인 영천이씨 묘소에도 참배한 뒤, 제비(燕娥)의 총(塚)에는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하였다. 영천에서의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는 칠곡 왜관 주변 상지, 석전, 매원 등 좌통례공(諱 克堅) 후손 집성촌에 들리, 종손과 종인들의 환대 속에 석담선생(諱 潤雨), 문익공(諱 元禎), 도헌공(諱 元

祿), 교리공(諱 漢命)의 불천위 별묘에 참배하고, 동산재를 둘러보며 설명을 들었다. 동산재는 칠곡에 입향하여 정착한 광주이씨의 3대 재사 3동이 품자형(品字形)으로 일곽을 이루고 있는데, 낙촌공(洛村公) 도장(諱 道長)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1913년에 세운 낙촌정(洛村亭), 아들인 원정(諱 元禎)의 유덕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03년에 세운 경암재(景巖齋), 아들 담명(諱 聃命)의 별사 봉향을 위해 1750년에 소암재(紹巖齋)와 묘실이 세웠다. 무더운 날씨에 칠곡 종인들의 정성스러운 환대를 받은 성지순례 일행은 고마움을 뒤로하고 귀가 길에 올랐다. 이날의 성지순례는 동방갑족의 긍지와 백대지친의 화목을 느끼는 좋은 행사였다. 칠곡 일가 종인들께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문경공파 양호당계 장령공 소종중 총무 용균(容均) 기

### 광천부원군파종회

### ■ 광천부원군파종회 고문 자문위원회 개최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에서는 2023년도 제2차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8월 11일 개최하

였다. 다변화하는 현재 주변의 동향과, 우리 종회의 대처 방안. 그리고 경제 침체로 종회에 미칠 영향의 대비와 종회의 소득증대 및 종회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의제를 논의하며, 종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 제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고문·자문위원들께서는 많은 고견을 피력해 주었다.

- 광천부원군파 총무이사 종두 기



### 목사공파종회

### ■ '이산(離散)의 한(恨) 정랑공 후손' - 목사공파 정랑공종회 창립 -

2023년 8월 19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5번 출

구를 나오며 반가운 분들께서 맞아주신다. 목사공(諱 之柔)의 셋째 아드님이신 정랑공(正郎公, 諱 貞元)의 후손들이다. 공덕시장, 시간의 때로 어지러운 간판 사이 골목 따라 닥지닥지 자리 잡은 족발집들이 늘어난 풍경...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애주가들에게 소문이 난 공덕역 족발 골목시장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12시, 점심시간에 맞추어 낯선 얼굴들이 족발집으로 들어선다. 낯설지만

무언가 혈족이라는 끈끈함에 끌리는 얼굴들이다. 이들이 목사공의 셋째 아드님이신 정랑공의 남과 북 이산(離散)의 한(恨)을 품은 후손들이시다. 목사공파종회 소계파인 광주이씨 목사공파 정랑공종회는 정랑공의 장자(長子)이신 극창공(克昌公)과 차자(次子)이신 극준(克峻, 용호(用浩) 공)의 후손들이 뜻을 모아 창립되었다. 자리가 정리되고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목사공파 정랑공종

회가 공식 창립되었다.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의 기념사와 정랑공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종의 회장(목사공파 총무이사, 정랑공의 장자 극창공의 후손)의 창립기념사가 이어진다. 조선 세종대(世宗代) 인물인 정랑공파 이 시대를 사는 후손들이 627년 만에 만나는 시간, 역사와 시대 변화의 풍랑 속에 이제야 감회어린 만남이라는 의미를 종인들에게 이야기한다. 기념사를 듣는 정랑공 후손 ‘훈식’ 어른의 감회 어린 표정에 북한에 두고 온 선영과 가족들이 비친다. 목사공파 정랑공종회는 정랑공의 숭모사업과 시향봉사(時享奉祀), 그리고 후손들 소통의 장으로 살아 숨 쉬도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노력할 것이다.

- ‘남북 분단의 섬, 離散과 望郷의 목사공파’  
한국은 마지막 분단의 섬이다. 광주이씨 후손들 중 분단 한국에서 망향(望郷)과 이산(離散)의 시간을 통함으로써 느끼는 사람들이 목사공의 후손들이다. 목사공(諱 之柔)의 네 아드님 중 장자(長子) 일원공(一元公)과 셋째 아들인 정원공(貞元公), 네째 아들인 계원(季元公)의 후손들이 분단의 땅 북한 지역에 살고 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기간에 월남하여, 남한에서 이산(離散)과 망

향(望郷)의 한(恨)을 품어 안고 삶을 일구어 오고 있다. 일원공의 후손들은 함경남도 갑산(甲山)지역과 함경남도 단천(端川, 목사공파 예빈시정공계), 그리고 평안남도 청천강에 면한 수륙 교통의 중심지로 농산물의 집산지인 안주(安州)지역에 터를 잡고 맥을 이어왔다. 그리고 정원공의 후손 중 장자(長子)인 극창공(克昌公)의 후손들이 함경남도 단천(端川)지역과 함경북도 회령(會寧) 지역(목사공파 관북계)과 함경북도 명천(明川)지역에 세거(世居)하였고, 정원공의 차자(次子)이신 극준공(克峻公, 用浩)의 후손(목사공파 정랑공계, 판돈령공종회)들이 탄광으로 이름난 평안남도 개천(价川)과 황해도 해주(海州) 송오(松塢)에 세거(世居)하였다. 그리고 계원공의 후손들이 평안남도 순천(順川)에서 삶을 일구었다. 목사공파는 2020년 목사공파종회 정상화 조치로 북한 지역에 뿌리를 둔 후손들인 ‘예빈시정공계’와 ‘판돈령공계’가 종사에 참여하고 있다.

- ‘목사공파종회, 이산(離散)과 망향(望郷)의 한(恨) 풀어주는 소통의 공간’  
북쪽에 고향을 둔 목사공의 후손들은 그동안 이북 5도민회 활동과 북쪽에 두고 온 고향 땅의 선

영(先塋)과 혈손을 그리는 소박한 망향제를 통하여 이산과 망향의 한을 달래 왔다. 그렇지만 선조와 후손을 이어주고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보학적 목마름은 풀 길이 없었다. 이 시대 종회는 이러한 목마름을 풀어주는 소중한 문화적 채널이다. 목사공파종회는 이러한 소명 의식을 갖고 앞으로 북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목사공의 후손들을 발굴하고, 종사에 참여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離散)의 한(恨)을 풀어주고 한 선조의 혈손이라는 끈끈한 정이 통하는 목사공파종회의 풍경을 그려본다.

- 목사공파종회 총무이사 ‘종익’記



목사공파 정랑공종회 창립 기념 다과회

## 에서운동가 이양재의 고족보 이야기 [7]

### - 한국의 이색(異色) 계보(系譜) 이야기 -

左議政公 後孫 愛書運動家 白民 李亮載  
우리나라의 이색(異色) 계보(系譜)를 소개하고자 한다.

족보(族譜)나 세보(世譜) 성보(姓譜) 가승(家乘) 등등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보(系譜)란 “족보(族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혈연(血緣) 이외에도 학풍(學風)이나 사조(思潮) 및 사제(師弟) 관계 등등의 학연(學緣) 연속성을 적은 책을 포함”한다. 즉 계보란 족보보다 범위가 넓은 의미로 쓰인다.

보학(譜學)은 조선초기에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학의 확산은 조선 영조조 이후 각 문종에서 족보를 편찬하는 시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보학의 문화사적(文化史的) 형성(形成)은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과거에 보학이라면 흔히 문중보학(門中譜學)을 의미했다. 각 문종에서 주장하는 것을 되풀이하여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각 문종의 보학은 상충하는 점이 있었다. 아마도 필자가 우리 문종의 [광주이씨회보]를 통하여 족보의 가치를 소개하는 이 시도가 문중보학을 한 단계 상승시켜서 문화사적(文化史的)인 보학으로 견인(牽引)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번 회 연재에서는 인물사 연구의 한 자료가 되기도 하는 이색 계보류를 광폭(廣幅)의 견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번 연재도 필자 소장

본을 위주로 소개한다.

가. 조선시대 양반가의 한글 가승(家乘)  
1897년 이봉운(李鳳雲)이 내놓은 대한제국의 교과서 [국문정리]는 순 한글로 저술된 책(목판본, 14장)이다. 그러나 이 책을 제외한 대한제국 교과서는 모두 국한문 혼용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 즉 국책(國策)으로 한글 전용(專用)이 시작된 것은 해방후의 일이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출가하는 딸을 위한 가승’이란 출가하는 딸에게 부계나 모계의 직계(直系) 계보를 적어 준 가승을 말한다. 조모나 외증조모의 직계를 포함한 것도 드물게 있다. 가승(家乘)은 대체로 한 집안의 직계를 주로 적어 놓은 것을 말한다. 직계 선조만 적은 것도 있고, 직계 선조의 형제 정도까지도 적은 것이 있으며, 가까운 일파(一派)를 수록한 계보를 가승이란 것도 있다. 조선시대에 족보는 한 집안의 가장, 즉 맏아들이 모셨다. 그리고 이외에는 직계 선조를 적은 가승을 모셨다.

대부분의 반가(班家)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부계와 모계의 직계를 적어 보냈다. 이러한 필사본으로 작성된 가승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한글 가승이고 하나는 한문 가승이다. 조선시대는 대체로 한문(漢文)을 숭상하는 시대였으므로 한문 가승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일부 반가에서는 여성에게도 한문을 가르쳤지만, 대부분 여성에게는 주로 언문(諺文, 한글) 교육했고, 지

금 남아 전하는 한글 가승은 시집가는 딸이나 며느리를 위한 것이다. 필자에게도 여러 점의 수진본(袖珍本) 크기의 한글 가승과 한문 가승이 수집되어 있다. 이제 우리 광주이씨 가문에서 작성한 한글 가승을 아래에 소개하며 논하고자 한다.

1. [廣州州李氏世系系], 1693년 이후 (17세기 말) 필사본, 수진본 1책. 9×14.8cm. 緋綴表紙 四針線裝. 한자를 먼저 쓰고 그 밑에 한글 토를 달았다. 중요한 것은 본문과 휘(諱)자 사이를 띄어서 쓰는 초보적인 한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점과 ‘李’의 한글 표기를 ‘이’가 아닌 ‘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승은 둔촌(遁村) 선조(先祖)가 십일대(十一代)로, 동고(東皐) 준경(浚慶, 1499~1572) 선조가 오대조(五代祖)로 되어 있으며, 조(祖) 필무(必茂)까지 기록되어 있다. 가승에 필무의 관직은 사헌부 장령으로 나오는데 [속종실록]에 의하면, 이필무(李必茂, 1628.09.14.~1693.12.14.)는 1693년(숙종 19년) 9월 24일과 10월 23일 사헌부 장령에 제수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광주이씨대동보](1988년) 권지일 117면에 의하면 그는 사헌부 장령에 제수된 그해 12월 14일자로 사망한다. 즉, 이 가승은 이필무의 관직으로 보아 1693년 이후에 사망 직후에 작성된 것이다. 이 ‘광주니씨세계’ 부분의 바로 뒤에 ‘나주나씨세계’가 나오는 있는데, 이필무의 아들 이용징(李龍徵, 1650~1726)의 배위(配位)가 나주나씨이다. 즉

이용징이 자녀를 위하여 이 가승을 작성한 것인데, 그의 졸년월일이 1726년 10월 30일인 것을 보면, 이 가승을 만든 연대를 늦추어 잡아도 속종 후기가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가승은 1693년 이후 3~4년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廣光州주李니씨世世系]가 어느 연대에 작성되었다고 보든, 이 가승은 국한문 혼용한 가승으로는 최고(最古) 연대로 올라가는 가승이다. 17세기 말에 우리 광주이씨가문의 한 인물이 국한문 가승을 선구적(先驅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이용징은 4남 2녀가 있다.)

2. [풍산홍씨세계], 1778년경, 궁체 필사본, 수진본, 1첩, 21×8.5cm. 절첩본.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필자 구장본). 이 가승은 마지막 대(代)가 “조고휘니·니낙춘”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홍낙춘(洪樂春)의 손자를 위하여 만든 한글 세계로 보인다. 홍낙춘은 홍국영(洪國榮, 1748~1781) 부친이자, 정조의 첫 번째 후궁으로 간택(1778년)된 원빈홍씨(元嬪洪氏, 1766~1779)의 부친이다. 한글 세계인 것을 보아 원빈홍씨를 위하여, 특히 원빈홍씨가 출산한다면 그 아들에게 외가를 교육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승도 ‘李’ 자를 ‘니’ 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승은 필자가 소장하다가 초보적인 한글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에, 2021년에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양여하였다. 이 가승의 띄어쓰기는 1693년 이후 17세기 말 필사본 [廣光州주李니씨世世系] 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초보적 띄어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어학회가 확정한 한글 띄어쓰기의 원류는 이들 가승류 고문헌에 있다.

3. [광주이씨세계], 1780년 이후 1800년 이전 18세기 말 필사본, 수진본 3첩. 6×10.1cm. 절첩본. 이 가승은 한글 전용이다. 휘자(諱字)를 적으면서도 한글을 먼저 적었다. 이 수진본은 3책인데, 초권이 한글 가승이고, 이권과 삼권은 한글 제례를 적고 있다. 그런데 이 가승에서는 ‘李’ 자의 한글 표기를 ‘이’ 로 하고 있다. 이 가승은 극돈(克墩, 1435~1503) 선조의 8세손 한동(漢東, 1689~1753) 선조까지 적고 있고, 한동 선조의 아들 좌형(佐衡, 1714~1764)과 손자 정신(廷薰, 1730~1810) 증손자 상학(象鶴, 1780~1837)은 이름만을 적고 있다. 상학의 아들 지항(芝恒, 1801~1867)이 없는 것을 보아, 이 가승은 1800년 이전 정조조에 정신(廷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의 17세기 말 [廣光州주李니씨世世系]와 본 18세기 말 [광주이씨세계]의 작성은 80~100년의 시차가 있다. 그런데 ‘李’ 의 한글 표기가 ‘니’ 에서 ‘이’ 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문의 한글 가승에는 19세기 중반까지 ‘니’ 로 적고 있어 ‘李’ 의 보편적 표기는 ‘니’ 인 것으로 보인다.

4. [성산니씨세계], 1805년 이후 19세기 초 필사본, 수진본, 1첩. 7.6×16cm. 절첩본. 부(父)가 약원(若源)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약원의 자녀를 위하여 만든 순 한글 가승이다. 휘자 옆

에 한자로 토를 달았다. 성주이씨 약원이 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방목에는 이약원(李若源, 1766~?)이 1805년(을축) 증광시에 진사 3등 56위로 입격한 기록이 나온다. 즉 이 [성산니씨세계]는 1805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18세기 말 [광주이씨세계]에 ‘李’ 를 ‘이’ 로 표기하고 있는데, 1805년 이후 19세기 초의 [성산니씨세계]에서는 ‘니’ 로 표기하고 있다.

5. [풍산김씨세계], 1848년 1월, 정서체 한글 필사본, 1책(62장), 17×26.9cm. 5침 선장본. 23세 중휴(重休)가 나온다. 중휴에 “진사시 삼등에 등하시다” 라고 적고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풍산김씨 김중휴(金重休, 1797~?)는 1837년 정유년 식년시에 진사 3등 15위로 입격하였다. 이 가승의 맨 끝에 “무신 정월 초에 부니·니(는) 사제 삼자 우흠으로 가첩을 등출하여 급 니실하니” 라고 하고 있어 이 가승은 1848년(무신) 1월에 필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책을 필사한 우흠은 김중휴의 삼자(三字)이다. 그런데 1848년 [풍산김씨세계]에 배위(配位)로 등장하는 ‘광주이씨’ 라든가, 다른 분들의 배위인 ‘전주이씨’ ‘진성이씨’ 를 모두 ‘니’ 씨로 적고 있는 것을 보면, ‘李’ 를 ‘니’ 로 적는 것은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 한글본 [풍산김씨세계]는 62장으로 되어 있어 한글 가승으로는 상당히 방대하다.

우리는 이러한 한글 가승에서 조선중기의 ‘李’ 씨 성(姓)의 한글 표기가 대체로 ‘니’ 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일각에서는 ‘이’ 도 사용하였으나, 그렇게 사용한 극히 드물다. 현재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는 ‘李’ 를 ‘리’ 로 표기한다. 이것은 빨라야 일제강점기 초반에 나타난 현상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리승만(李承晩, 1875~1965)은 ‘李承晩’ 을 ‘리승만’ 으로 표기하고, ‘리’ 를 ‘Rhee’ 로 표기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니승만’ 으로 발음하였다.

조선중기에 허균(許筠, 1569~1618)은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지었다. 당시 한글로 소설을 쓴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이후 80여년이 지난 1693년 이후에 이용징 집안에서는 [廣光州주李니씨世世系]를 작성하였다. 1693년은 숙종 19년으로 조선중기이다. 당시는 남존여비(男尊女卑)가 뿌리를 내리던 봉건사회였고, 족보 편찬에서 선자후서(先子後壻)의 원칙이 굳어가던 시기였다. 또한 당시에는 한글을 언문(諺文)이라고 낮추어 불렀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중기에 한글 가승이 출현하며, 정조조(正祖朝)의 한글 가승에서는 띄어쓰기의 시원(始原)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나. 진신보류(縉紳譜類)

조선시대의 문중보학은 문과 급제한 사회지배층 인물들이 자신들의 혈연적 계보를 과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면 문과 급제자의 8세를 수록한 [문보(文報)]와 문보의 이름만 달리한 [문과팔세보] [진신팔세보(縉紳八世譜)] 등등과 조상 덕분에 음직(陰職)을 얻은 인물의 8대를 수록한 [음보(蔭

譜)], 그리고 [문보]와 [음보]를 합한 [문음보(文蔭譜)]가 있고, 무과 급제자의 8대를 수록한 [무보(武譜)]가 있다. [문보]나 [음보], [문음보]보다는 [무보]가 훨씬 희소하다. 이들을 통틀어 [진신보(縉紳譜)]라고도 하며, [진신보류]라 통칭한다. 이들 [진신보류]는 성씨와 본관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는데, 성명과 자(字) 출생연도 및 출신 과거의 연도와 종류를 기재하고, 아버지 이상 8대조까지의 조상과 외조부 및 장인의 성명과 관직을 기록하였다. 때로는 성명 위에 그가 역임한 최고관직과 품계, 처벌내용, 사망 여부를 두주(頭註)로 표기하였다.

1. [문과팔세보(文科八世譜)], 정조조~순조조, 필사본, 1책, 22.6×31.6cm. 주로 정조조의 51개 성씨 문과급제자의 계대(系代)를 수록하고 있다.

2. [문보(文譜)], 철종조~고종조, 필사본, 2책, 22.2×35cm. 주로 철종조의 64개 성씨, 190여 본관의 문과급제자의 계대를 수록하고 있다. 이 [문보] 2책은 두주에 소속 문파(門派)를 기록하고 있는데, 채색으로 사색당파를 표시하였다.

3. [문보(文譜)], 고종조, 필사본, 1책, 23.5×28.2cm. 이 [문보]는 5개 성씨(이김박윤정), 38개 본관의 조선말기 문과급제자 계대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 역시 채색으로 사색당파를 표시하였다.

4. [음보], 철종조~고종조, 필사본, 1책, 21.5×35cm. 주로 철종조의 37개 성씨, 95개 본관의 음직자의 계대를 수록하고 있다. 이 [음보]는 위에 소개한 [문보] 2책 본과 한 조(條)로 입수한 책이다. 책이 가로로 크기는 다르나 세로의 크기는 같다.

5. [무보], 고종조, 필사본, 1책, 22.2×35cm. 소안동 윤석정(尹錫禎) 구장본. 주로 고종조의 13개 성씨, 80개 본관의 무과급제자 계대를 수록하고 있다.

족보는 계대를 분류하는 6~8칸의 횡간을 그려 그 안에 그 대에 맞는 인물을 수록한 횡보(橫譜, 橫間譜)와 종보(從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상의 진신보류는 모두 종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 통보류(統譜類)

조선후기에 가운데 사회지배층을 배출한 여러 가문의 중요 계보를 모아 수록한 [잠영보(簪纓譜)]라든가 [諸家譜] [제가세보(諸家世譜)] [씨족원류(氏族源流)] 등등이 있다. 일종의 통보류(統譜類) 보서(譜書)이다. 이 통보류 보서의 진수는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와 [청구씨보(靑邱氏譜)] [역대인감보(歷代人鑑譜)]이다. 이를 엄선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제가세보(諸家世譜)], 순조조, 필사본, 2책, 20.3×28.5cm. 각 면 16칸의 횡간으로 되어 있어 계보의 가독력(可讀力)을 높이고 있다.

2. [성보(姓譜)], 철종조, 필사본, 1책(영본), 18.2×29.5cm. ‘金崔韓洪鄭申’ 등 6성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3책중 권2이다. 횡간은 그리지 않았고 한 면에 12~13대가 들어 가도록 하

고 있다.

3. [씨족략람(氏族畧覽)], 1862년, 필사본, 3책 (전4책 중 권1결), 23.8×37cm. 이 책의 권1은 ‘이(李)’ 씨를 수록한 것인데 낙질. 각 면 11칸의 횡간. 권4의 끝에는 ‘년대통고’와 ‘력대력년’, ‘팔도군현연혁’ 등등을 수록하고 있다.

4. [남보(南譜)], 고종조, 필사본, 4책, 21.4×32.8cm. 각 면 18칸의 횡간. 총보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남인을 위주로 그 계보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5. [청구씨보(靑邱氏譜)], 1925년, 목판본, 20권20책중 18책(권5, 10 결본). 22.6×33.5cm. 1면 22단의 횡간. 송진섭 가장의 [대동초보(大東抄譜)] 10책을 20책으로 증보 재편하여 [청구씨보]라 개칭(改稱)한 책이다.

6. [역대인감보(歷代人鑑譜)], 1959년(기해), 필사본, 5책. 서문과 목차 등이 47면이고, 본문이 2,751면이니, 도합 2,798면이다. 한 면에 13대를 적을 수 있으며,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입격과와 직위, 처부(妻父) 등을 적었고, 문집이 있으면 문집 이름을, 중요한 인물은 행적(行蹟)도 적었다. 이 책은 박능서(朴能緒)가 편찬한 책으로, 1955년 9월 7일부터 1959년 2월 21일까지 만3년 5개월 15일간 철필(鐵筆, Pen) 필서(筆書)하여 완성한 통보(統譜)이다. [역대인감보]는 우리나라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 박능서가 완성한 20년 후 이 책은 [한국명문통보]라는 개제(改題)하에 영인본이 나왔다.

이러한 통보류 계보는 적으면 10칸, 많으면 22칸을 한 소목도(昭穆圖) 수준의 간략한 횡보(橫譜)이다. 대체로 이름과 관직 등을 적었다. 위의 총보 가운데 1959년의 [역대인감보(歷代人鑑譜)]는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20세기 말까지 나온 통보류 계보의 결정판이라 할만하다.

라. 향보(鄉譜)와 인보(姻譜)

향보(鄉譜)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계보이고, 인보(姻譜)는 혼인한 외척의 가승을 모은 계보이다. 필자가 모시고 있는 향보는 [조선세가(호남편)](1940년경), [청금세보](1941년), [상주군성별계보](1974년) 등이 각 1책 있고, [인보(姻譜)]는 필사본 1책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항목을 소개한다.

1. [조선세가(朝鮮世家) 호남편(湖南編)], 1940년경, 8권4책, 석판본.

2. [청금세보(靑襟世譜)], 1941년 11월 15일, 2권1책, 석판본. 권1에서는 단군조선에서부터 조선 영친왕까지의 왕대(王代)를 수록, 권2에서는 광주(光州)와 무안(務安)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가승(家乘)을 수록.

위의 [조선세가]와 [청금세보]는 1939년 일제가 명령한 창씨개명(創氏改名)에 대항하여 발행한 책으로 보인다. 1940년과 1941년이면 창씨개명의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마. 내시보(內侍譜) 승통보(僧統譜) 노비보(奴婢譜)

이색 계보라면 우선 내시보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내시보]뿐만 아니라 [승통보]나 [노비보]도 일종의 계보라 할 수 있다.

1. 내시보 [가승], 시조 김계한(金繼韓, 호성공신 3등, ?~1637)에서 조귀달(趙貴達, 1855~?)까지의 직계 계보. 필사본, 절첩본, 2첩. 7.6×15.4cm. 내시들도 양자를 택하여 가계를 이어갔고 족보를 작성하였다. 내시 족보로는 1805년(순조 5)에 이윤묵(李允默)이 편찬한 『양세계보(養世系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등이 전해진다. 이 족보에는 내시 777명의 자호, 본관, 생몰년, 묘소 위치, 배우자의 본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내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필자에게는 내시 집안의 가승이 소장되어 있다.

2. [승통보], 필사본, 선장본. (스님들의 법통을 적은 승통보 필사본은 죄송스럽게도 서재에서 찾기가 어려워 소개를 미룹니다.)

3. [노비보(奴婢譜)], 이 문서의 원제(原題)는 [무오십일월초칠일(戊午十一月初七日) 길주사천안등서(吉州私賤案臚書)]이다. 1738년(무오), 약 304×26cm. 원본. 풍천임씨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들의 혈통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 계보를 적은 것이다. 이러한 [사천안]은 조선사회를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서 매우 희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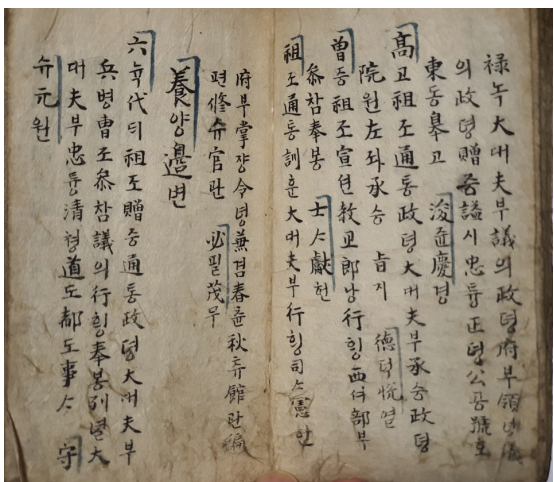
이러한 [내시보]나 [승통보] [노비보] 등등의 이색 계보는 그 직업 또는 신분에서 따온 계보이다. 이러한 이색 계보 가운데 특히 비참한 것은 계보 형식으로 소유자에 의하여 기록된 [사천안(私賤案)]이다.

바. 총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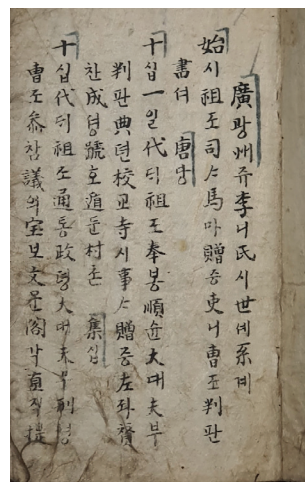
필자는 이 마지막 회 연재 글까지 우리나라에서 족보 편찬의 흐름을 보여 주려 했다. 현대적인 보학을 문화사적으로 연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재간보의 확보이다. 여러 문종의 초·재간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리 광주이씨가문의 인물들이 간행한 고족보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광주이씨 문종의 인물들은 여러 면에서 역사 위에 남긴 발자취가 분명한데, 조선시대의 족보 편찬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광주이씨가문의 족보는 다른 씨족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청보(淸譜)이다. 타 성씨의 일부 가문이 초·재간보를 편찬하면서 보여준 과대 포장이라든가, 19세기 중반 이전의 고족보와 1895년 이후의 근대 족보를 비교할 때 드러나는 혼탁함이 광주이씨가문의 족보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그것은 광주이씨가문의 많은 인물이 각기 지향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성실성과 성과를 보여주었던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연재에 사족(蛇足)을 붙이고자 한다. [광주이씨회보]에서 공개한 필자 소장 고족보만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족보 수집품보다 질적 수준이 높다. 이제 어느 지자체나 개인, 또는 법인이 나서서 이 수집품을 기반으로 하고 1880년 이후의 족보를 더 수집하여 미래지향적인 우리나라의 계보연구센터나 박물관을 만들었다면,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지키겠다는 진짜 보수파가 나온다면 필자는 조건부로 이 수집품 모두를 영구 기탁(寄託)하고자 한다. 내가 완성 못한 연구 및 활용을 다음 세대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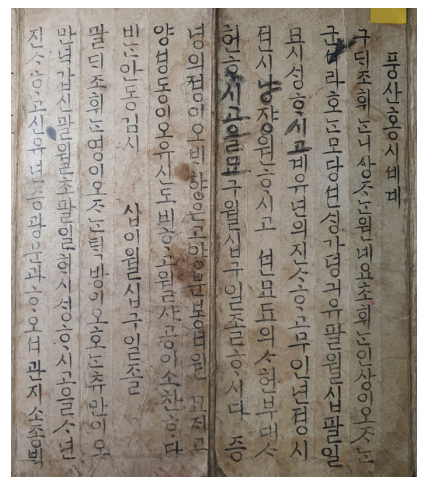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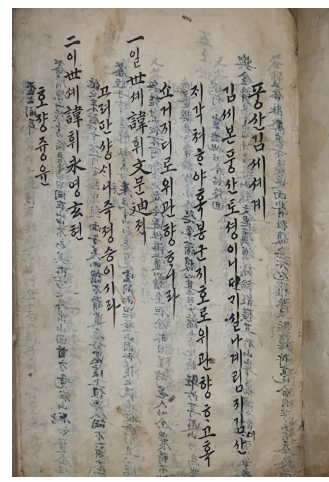
<사진 설명>



[廣州李氏世系], 1693년 이후(17세기 말) 필사본, 수진본 1책. 9×14.8cm. 緋緞表紙 四針線裝. 관직과 휘(諱) 사이를 띄어쓰고 있다. 한자에 한글 음토(音吐)를 달았는데, 이는 한글 가승의 원초적(原初的) 모습이다. 이 가승은 이용징(李龍徵, 1650~1726)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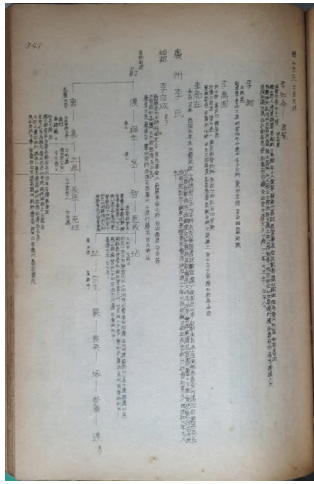
[풍산김씨세계], 1848년 1월, 정서체 한글 필사본, 1책(62장), 17×26.9cm. 5침 선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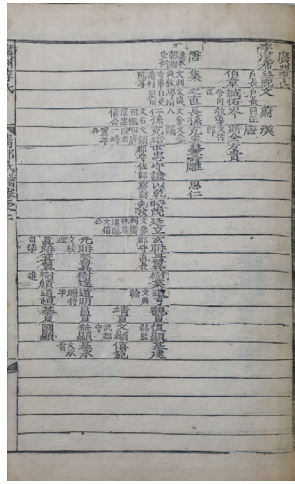
[풍산홍씨세계], 1778년경, 궁체 필사본, 수진본, 1책, 21×8.5cm. 절첩본.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필자 구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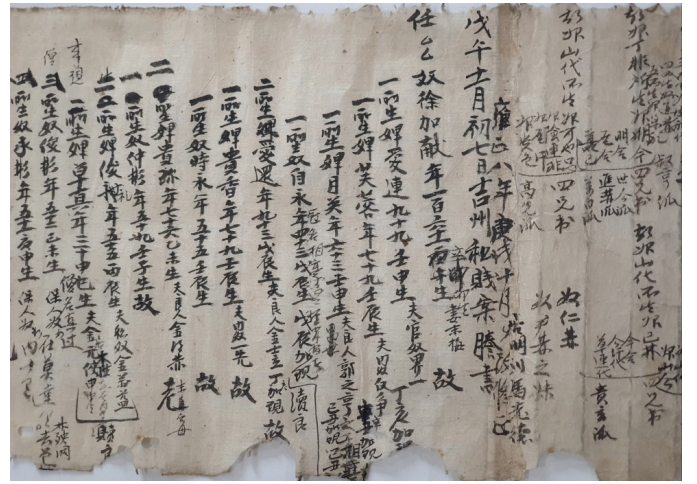
[문보(文譜)], 철종조~고종조, 필사본, 2책, 22.2×35cm. 광주이씨 부분 첫면.



[역대인감보(歷代人鑑譜)], 1959년(기해), 필사본, 5책. 광주이씨 부분 첫면.



[청구씨보(靑邱氏譜)], 1925년, 목판본, 20권20책중 18책(권5, 10 결본). 22.6×33.5cm. 광주이씨 부분 첫면.



[노비보(奴婢譜)], 이 문서의 원제(原題)는 [무오십일월초칠일(戊午十一月初七日) 길주사천안등서(吉州私賤案牘書)]이다. 1738년(무오), 약 304×26cm. 원본.

광이의 날 행사 소회

# 광이여! 영원히 빛날지어다, “미래를 위한 어울림”

## “廣李의 날, 제26차 광주이씨 청장년연합대회”

지난 2년간 앞만 보며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이 달렸다.

아무것 가진 것 없이 텅 빈 공간에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나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실행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2021년 10월 영천 시조(始祖) 판서공 시사(時祀)를 봉행(奉行)할 때, 대구·경북 청장년회 종호 회장이 차기 연합대회를 우리가 유치하여 대회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사 타진이 대회를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3월 14일 성남 둔촌선생 재실 추모제(追慕齋)에서 제26차 청장년연합대회를 대구경북 청장년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는 선포와 함께 연합회 대회기 인계 인수를 받았다.

제25차 연합대회까지 치르면서 행사 후 수차에 온갖 구설수(口舌數)로 내분(內紛)이 있었으나, 제26차 연합대회를 계기로 대중회를 비롯하여 각 지파 종회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키고, 청장년회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과, 청년회가 대구에서 최초로 태동(胎動) 되었음을 상기하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각오를 다지고, 행사 준비를 위한 임원진을 구성하고, 계획을 세워 각자의 소임을 다하도록 다짐하면서, 회장은 대내외적 압박에 방패가 될 것을 약속하고 행사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독려(督勵)하였다.

전국에 걸쳐 11개 지역 청장년회가 산재해 있고, 선조님의 유택(幽宅) 또한 전국에 걸쳐 계시기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찾아뵙고, 청

장년연합회의 역할론과 연합대회 행사 홍보를 하면서 다녔으나. 점점 산업화와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 조상에 대한 승조 정신의 인식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단체모임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까지 발생하고, 경기 불황에 청년들의 고실업으로 사회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으며, 개인의 사업 또한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 청장년회가 위축(萎縮)되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지역청장년회에 어떻게 하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경제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며 대중회 옥재 회장과 임원들에게 수차에 걸쳐 지원 요청하였으며, 칠곡의 석담종회 수상 종회장과 많은 종인들께서 힘들어하는 청장년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 등에 힘입어, 회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대중회로부터 역대 1억원이라는 최대의 후원금을 지원받기로 확정하면서 “廣李의 날”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청장년연합회는 연합대회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후손들에게 긍지를 심어 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슴 깊

이 새기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보학을 통해 우리 廣李의 위대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 2023년 8월 26일 영광스런 날! “廣李의 날” !

드디어 “미래를 위한 어울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26차 廣州이씨 전국 청장년연합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대중회 주영 회장님께서 고대하고 기대하는 “廣李의 날” 개최의 개최를 발표하시며, 뜨겁게 그리고 황홀하게 廣州이씨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廣李의 날” 행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1,000여 종친들 앞에서 심어 주었다.

달성의 비슬산 자락에서 1,000여명이 회원과 가족들이 운집하였으며, 특히 어린 유·청소년들 약 100여명 참석하여 廣州이씨 미래의 희망을 보는 듯 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웠다.

식전 행사중 유·청소년들에게 영상 보학을 통해 영천 광릉골에 계시는 시조 판서공 휘 당 할아버지와 둔촌할아버지, 그 아들 삼 형제분 이야기, 팔극조정의 위세를 설명하면서 퀴즈를 병행한 결과,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통해 배운 것





을 잘 맞추어, 다시 한번 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廣李의 날 제26차 청장년 연합대회 참석하여 주신 廣州이씨 대총회 주영 회장, 용두 부회장과 상근이사, 총회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파 종회 재석 회장. 그리고 사인공파 종회 용화 회장, 광릉부원군파 종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 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 회장, 광원군파 종회 용철 회장, 좌의정공파 종회 충교 회장, 참판공파 종회 선래 회장, 좌통례공파 종회 택수 회장, 문숙공파 종회 용중 회장,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 등 10개 지파 종회장께서 함께하시고, 입찰곡조(入漆谷祖)의 병구 종손과 문경공 광희 종손, 충주를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종배 국회의원, 달성군의회 서도원 의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가 더욱 빛났으며, 그 외에 많은 내빈들께서 내왕하여 “廣李의 날” 행사가 성대히 그리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여름의 열기가 식어가듯 그간의 노력으로 광이의 날 청장년연합대회는 아쉬움 속에 끝났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연로하셔서 고향 칠곡 지천의 심천에 계시는 이추연, 이삼순 부모님께

서 참석하지 못하신 점이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크게 남는다.

그리고 부족한 진행으로 참석하신 내빈분들에게 의전에 소홀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드린다.

마지막으로 내빈들의 의전을 전담해주신 좌통례공파 칠곡종회 승호 회장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행사를 소회해 본다.

제 25대 전국 청장년연합 회장 19대 상철 씬

## 광주 이씨의 날 제26차 광이 청장년회에 참석하다

- 일시: 2023.8.26. 5 : 30 ~ 8 : 30. pm.
- 장소: 대구 달성군 비슬산
- 참석: 이경희 이사장, 이용래 고문, 김정기 실장 외 광주이씨대총회 청장년회 및 가족.

오늘은 대구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광주이씨 대총회 청장년회 모임에 가는 날이다. 오전 11:30분 용래 고문이 청장년회에 함께 참석차 이천동 집으로 왔다. 12시경 김정기 실장과 같이 이천동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간단히 한 후 1시경 출발하여 내륙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 커피 한 잔씩 하고 곧바로 비슬산으로 향했다. “비슬산은 대구 달성군과 경북 청도군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산 정상에 바위 모양이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비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고봉은 해발 1083.4m DML 천왕봉(天王峰)이다. 유가사(瑜伽寺) 쪽에서 올라다보면 정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바위 능선이 우뚝 솟아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장장 4시간 반을 달려 5시 30분경에 목적지인 애잘리아 호텔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치고 연회장으로 내려갔다. 즐겁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큰 축제 분위기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대총회 양재 총무이사, 주홍 재무 이사가 반갑게 맞는다. 주영 회장 도착을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다. 얼마 후 주영 회장 내외분이 도착하여 반갑게 용래 고문과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아서 저녁을 맛있게 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영 회장 내외분

이 광이 청장년 회원 및 가족들과 인사차 이석한 사이 우리 일행은 잠시 흥미롭게 진행되는 여흥을 듣는 중에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앉아 있던 의자를 들고 무대 앞으로 가서 행과 열을 맞추어 착석하였다.

잠시 후 정각 7시부터 식이 시작한다는 장내 사회자의 말이 나오자, 10곳의 청장년 회의 각 지회 기수단이 설립순서로 입장하여 단 앞에 기를 차례로 진열해 놓는다. 전국에서 모여든 청장년들과 가족들이 모두 700여 명의 환호를 들으니 대단한 규모로 광이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이어서 공로패 수상, 청장년 회장 인사가 있는 후 주영 회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주영 회장의 격려사의 요지는 “우리 광이의 청장년 회의는 전 광이의 행사로 확대 발전되어야 하며 오늘부터 ‘광이의 날로 불러야 한다 ‘고 역설하여 많은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오래전부터 경재 회장으로부터 광이 청장년회가 활발하게 모인다고 알고 있었으나, 오늘에서야 이렇듯 성대한 자리에 참석하니 감회가 깊어지며, 몇 가지 느낀 소감을 적어 보기로 한다.

첫째 씩씩하고 늠름한 여러 광이 분들을 만나 보니 어느새 필자가 한결 젊어지는 느낌이 들며, 우리 광이 앞날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는 듯하여 매우 마음 든든하였다.

둘째로 우리 광이의 발전은 이곳에 모인 청장

년의 어깨에 있다고 믿는다. 그만큼 청장년들의 책임이 무겁고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 막중한 책무를 스스로 인식하고 잘 수행할 때 우리 광이의 무궁한 발전이 기약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 광이는 조선왕조 오백 년 긴 세월 동안 조정에 나가 가장 현격한 역할을 해온 집안이며, 지금도 그 맥을 이어 가고 있다. 얼마 전에 광문회 모임에서 현역 용호의원의 말을 빌리면, 국회의정사상 우리 광이 출신이 여타 종파 보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진출하여 말은 소임을 다하여 왔다고 한다. 한음 할아버지, 중재 의원, 수성 총리, 용훈 대법원장, 경재 의원, 달곤 장관, 주영 장관, 종구 의원, 용호 의원 등 일일이 거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헌신해 오신 분들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선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광이의 빛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광원 군의 17대손으로 평생을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몰입해 오다가, 은퇴 후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인 작은 연구원을 세워 19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지금도 90여 명에 이르는 젊은 건각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늘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한 서울에서 내려온 광원군 18대손 용래 장조카를 소개한다. 용래는 일찍이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졸곧 대우 시절부터 GM Korea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청장년회 참가하여 광이 후손들과 호흡을 함께 할 것이다.

마음속으로 청장년회에 참석하신 모든 광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종철 소장의 배움을 받으며 행사장을 나와 귀경길에 올랐다. 밤 12시경 이촌동 집에 도착하니, 장장 왕복 9시간 가까이 차속에서 흔들려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뿌듯하다. 아마도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정기 속에 700여 명의 광이가 함께한 청장년회에 다녀왔다는 보람과 광이의 자긍심에 묻혀졌기 때문일 것이다.

2023. 8. 30 서빙고현에서 이사장 경희 회



자리에 앉아 개회식을 지켜보며



질서 정연하게 앉아 관람하는 광주이씨 청장년회원들

인물동정

# 사인공파 인재(寅載) 현종 한신대학교 부총장 취임

인재(寅載) 현종은 사인공(諱 長孫)의 후손으로, 다년간 대중회 사적심사위원을 역임한 한원장학재단(漢園獎學財團) 및 한원복지재단(漢園福祉財團)의 이사장이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인 용달(容達) 현종의 장남이다. 서울대학

교 문리과대학에서 학사,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군복무를 끝낸 후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신대학교 조교수(助教授)를 시작으로, 학생처장을 위시한 여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인재 현종은

2023년 9월 1일 한신대학교 대학원장에서, 동대학교 초대 부총장으로 임용되어 봉직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원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사회활동까지 하고 있는 자랑스런 광주인이다

보학교실

## 자손과 관련된 용어 정리

○ 자손록(子孫錄) : 대대로 내려온 자손(子孫)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 자손(子孫) : 아들과 여러 대의 손자(孫子)를 말하며 후손(後孫)이라고도 한다.

① 사자(嗣子)는 부몰(父沒 아버지)이 고인이 됨 후 장자를 일컫는 말이다.

②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의 정통을 받아 잇는 자손을 말한다. 사손(嗣孫)은 흔히 혈연을 이어갈 자손을 뜻하는 혈손(血孫)과 대비되어 쓰이는데, 혈손은 생물학적 자손을 뜻하는 데 반하여 사손(嗣孫)은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적인 자손이라 하겠다. 적자와 서자가 다 없을 경우에는 동성동본인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었다. 이를 입후(立後), 계후(繼後) 또는 후사(後嗣)라고 하였다.

③ 사손(祀孫)이란 조상의 제사를 맡아 지내는 자손을 지칭하는 말이다. 봉사손(奉祀孫)의 줄인 말로 봉사손(奉孫)이라고도 한다. 사손(嗣孫)은 집안의 가계를 계승하면서 제사도 지내지만, 사손(祀孫)은 제사만 지내는 자손이다. 그래서 사손(祀孫)은 가계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손(嗣孫)과는 의미가 다르다.

④ 봉사손(奉祀孫)이란 종손의 유고로 적장손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손이다. 이때 양자를 들여 사손(嗣孫)으로서 대를 잇게 하는데 의무와 권한은 종손과 같다고 보면 된다.

⑤ 승중손(承重孫)이란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고인이 되었을 경우, 계대(系代)를 할아버지에게 직접 받게 되어, 장손으로서 할아버지의 제사를 직접 모시는 손자를 말한다.

⑥ 승적(承嫡)이란 적장자가 없을 경우 서자(庶子)가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를 말한다.

⑦ 입후(立後)란 친족의 적자를 양자로 세워서 가계를 계승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후(繼後)라고도 한다. 문중에 따라서는 자기의 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족의 적자를 입후시키는 사례도 많았다.

⑧ 대종손(大宗孫)은 시조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를 말하고, 종손(파종손)은 파조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와, 파조 이하 지파의 불천위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를 말한다(국불천위의 경우 宗君). 종통을 이어받아 종가, 사당, 선산, 제사 등의 종무를 주관한다.

⑨ 종손(宗孫, 파종손)이란 한 종파(宗派)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4대 이상(四代以上)을 계속하여 장자(長子)로 내려온 사손(嗣孫)을 말한다. 종손은 대종손과 종손(파종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파종손이라고도 하는데 각 파의 파조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로서 범위만 작을 뿐 역할은 대종손과 같다.

- 파조 이하 지파의 불천위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이다.

- 종손은 불천위를 모셔야 하며, 시호를 받았거나 2품 이상의 선조를 파조로 모셔야 종손의 요건이 된다고도 하지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

- 소종중에서는 5~6대 선조를 모시는 장손자도 종손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문종보다 더 큰 종중(문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손으로의 호칭은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차종손(次宗孫) : 동성동본의 일가 가운데 가장 큰 종가의 계통에서 갈려 나온 종가의 대를 이을 맏손자.

⑩ 주손(胄孫)이란

- 종손(宗孫)과 사전적 의미는 거의 같다. 하지만 종손과 주손을 관습적으로 구분한다면 종손은 종가의 대를 잇는 장손자, 주손은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장손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 파조이하의 지파에서 불천위가 아닌 선조(현조, 입향조 등)로부터 장자 장손으로 계속 대를 이어온 장손자로서 범위만 작을 뿐 역할은 종손과 같다.

- 일설에는 6대 이상의 선조를 모셔야 주손이라 한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요건이라 할 수 없다.

- 소종중에서는 5대조 이하의 선조를 모시는 장손자도, 종손 혹은 주손이라고 하지만, 가능한 겸양의 의미로 종손이란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⑪ 장손(長孫)은

- 대체적으로 종가(宗家)가 아닌 차자손(次子孫) 집의 3~5대에 걸쳐 장자 장손으로 대를 이어온 맏손자를 말한다.

- 소종중에서는 장손을 종손 혹은 주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겸양의 의미로는 장손으로 호칭함이 좋다. 지파의 장손자는 아무리 많은 대수로, 장자 장손으로 대를 이어왔어도, 불천위를 모시지 않으면, 종손(파종손)으로 칭할 수 없고, 주손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되나, 종가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손과 주손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시조나 파조 이하에서 분파한 맏집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종가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주자가례> 사당 편에 신주를 모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대종과 고조를 잇는 소종, 증조를 잇는 소종, 조부를 잇는 소종, 부를 잇는 소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소종은 종손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종가를 대종가와 소종가로 구분한다는 말이며, 대종손과 소종손의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와 같이 고조이하의 소종가와 소종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습적으로 불천위를 모시는 장손자를 종손(파종손)이라고 칭하고, 불천위를 모시지 않는 장손자를 주손 혹은 장손이라고 칭하고 있다.

⑫ 지손(支孫)이란 차손(次孫)에서 내려온 자손(子孫)을 말한다. 종손, 주손, 장손의 상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⑬ 말손(末孫) : 말손이란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고 한다.

⑭ 혈손(血孫)이란 혈(血)로서 이어진 생물학적인 자손을 말한다.

## 둔촌선생과 청백리공 선조의 신주 봉안문 (遁村先生 清白吏公 先祖 神主 奉安文)

遁村先祖(둔촌선조) 둔촌 할아버지께서는  
 孝行令資(효행영자) 효행의 아름다운 자질에  
 冰蘖雅操(빙벽아조) 빙벽의 청렴한 지조였습니다.  
 文章德行(문장덕행) 문장과 덕행이 뛰어나니  
 黼黻煒煌(보불위황)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웠습니다.  
 道德大節(도덕대절) 도덕과 큰 절개는  
 輝映百世(휘영백세) 백세토록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炭川先祖(탄천선조) 탄천 할아버지께서는  
 道學文章(도학문장) 도학과 문장이며  
 清德節義(청덕절의) 청덕과 절의가  
 國初名賢(국초명현) 국초의 명현이셨습니다.  
 偉節清風(위절청풍) 우뚝한 절개와 청렴한 풍도  
 直道如矢(직도여시) 직도는 화살처럼 곧았습니다.  
 成仁就義(성인취의) 인의를 추구해 이루었으니  
 姿良金貞(자량금정) 그 모습 황금 같고  
 操勵冰潔(조려빙결) 굳은 절조 얼음 같았습니다.  
 尸祝纒崇(시축재송) 제사로 받들어 겨우 높였으나  
 孫制旋掣(손제선체) 후손들의 제도에 곧 구애되니  
 藐茲後昆(막자후곤) 아득한 이 후손들이

漢丘炭水(한구탄수) 남한 언덕 탄천 물가에  
 有伽闕宮(유혁비궁) 고요한 사당을 두었습니다.  
 久欠盛典(구흠성전) 오래도록 성전을 거행하지 않은 것은  
 時亦有待(시역유대) 또한 때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恭惟遁村(공유둔촌) 공경히 생각컨대 둔촌 할아버지와  
 暨厥炭川(기결탄천) 그리고 탄천 할아버지께서는  
 父子之間(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襲美鍾庥(습미중휴) 아름다운 덕을 계승하셨으니  
 並萃一室(병취일실) 아울러 한 실에 모셔서  
 合堂同謁(합당동철) 같은 당에 함께 제향함이  
 情禮則宜(정예칙의) 인정과 예법에 합당할 것입니다.  
 願妥靈焉(원타령언) 여기에 영령을 봉안하니  
 蘋藻香潔(빈조향결) 향기롭고 정결한 제물에  
 精爽若臨(정상약림) 정령이 친히 임한 듯 합니다.  
 恭陳明薦(공진명천) 공손히 정결한 제수를 진설하고  
 敢告微誠(감고미성) 감히 작은 정성으로 고유하오니  
 永願顧歆(영원고흠) 길이 원하건대 이르러 흠향하시어  
 啓佑後孫(계우후손) 후손들을 계도하고 보우하소서.

## 적암 조신(適庵 曹伸)은 소문쇄록(謏聞瑣錄)에서 둔촌 선생의 시(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절창(絶唱)을 세어 내리자면,  
 - 혼후(渾厚)하기로는 둔촌(遁村)의 「세상(世上)의 태평(泰平)을 기원(祈願)하여 향(香)을 피워 올리고, 식량(食糧)의 풍족(豊足)을 위해 풍년(豊年)을 기원하노라(焚香祈道泰 對食願年豊 분향기 도태대식원연풍)」와, 「기러기 소리에 해는 지고 강촌은 저문데, 한가히 신시(新詩) 읊으며 홀로 다락에 기댄노라(鴈聲落日江村晚 閑詠新詩獨倚樓 안성낙일강촌만한영신시독의루)」와,  
 - 침통(沈痛)하기로는 둔촌의 「느지막하게 강해(江海)에 나와 보니 풍파가 사나운데, 어느 깊은 물굽이에 낚시 배를 땄거나(晚來江海風波惡 何處深灣繫釣舟 만래강해풍파악하처심만계주)」와,

호장(豪壯)하기로는 둔촌의 「기다려 밝은 가을 달을 한 배 가득히 싣고, 한 곡조(曲調) 긴 적(笛) 대 불며 강루(江樓)를 지나노라(待得滿船秋月白 好吹長笛過江樓 대득만선추월백호취장적과강루)」와,  
 - 한적(閑適)하기로는 둔촌의 「어찌하면 뜻 맞는 두 노인이 이웃을 이루어서, 살구꽃 피고 봄비 올 때 나란히 짝이 되어 밭갈이 해 볼꼬(安得卜隣成二老 杏花春雨耦而耕 안득복인성이노행화춘우우이경)」와,  
 - 고담(枯淡)하기로는 둔촌의 「여윈 말은 석양을 바라보며 울고, 가냘픈 어린 종 등에는 찬바람이 부는구나(瘦馬鳴西日 羸童背朔風 수마오서일 영동배역풍)」를 찬사(讚辭)하고 있다.

※ 적암 조신(適庵 曹伸 1454~1529)은 자는 숙분, 호는 적암, 본관은 창녕으로, 조선의 역관이며 문인이다.  
 시와 어학에 능하여 사역원경에 특선되었다. 명나라의 연경에 7회나 왕래하였으며, 신숙주를 따라갔던 것을 비롯하여 일본에도 3회 왕래하였다. 종종 때 김안국과 더불어 「이륜행실도」를 지었는데, 국민 교화의 좋은 자료가 되었다. 만년에는 금산에서 은거하였다. 저서에 「적암시고」와 「소문쇄록」이 있다.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8월 구독 및 찬조			이영배	10,000	경남 창원	이권재	10,000	대전 동구	이흥재	10,000	경남 창원
이창수	20,000	강원 강릉	이풍재	10,000	충남 부여	이흥재	10,000	대전 중구	이용호	10,000	대전 서구
이주호	20,000	서울 노원	이진수	300,000	전북 군산	이승완	10,000	대전 서구	이종규	10,000	대전 서구
이택수	20,000	경기 오산	이범재	10,000	경북 칠곡	이용복	10,000	대전 유성	이공재	10,000	서울 서초
이용진	10,000	서울 성동	이수성	50,000	울산 동구	이증재	10,000	대전 유성	이준재	10,000	대전 서구
이유환	10,000	경북 영천	대전해주공중회 10,000 X 38명 = 380,000원			이용건	10,000	서울 동대문	이정재	10,000	대전 중구
이용순	10,000	전남 보성	이용복	10,000	대전 유성	이승재	10,000	인천 미추홀구	이상훈	10,000	대전 유성
이현식	10,000	경기 이천	이용필	10,000	대전 서구	이염래	10,000	서울 서초	이원재	10,000	서울 종로
이석화	10,000	서울 동대문	이용석	10,000	대전 유성	이번래	10,000	경기 광명	이승언	10,000	서울 강동
이점용	20,000	부산 금정	이화래	10,000	대전 중구	이용덕	10,000	경기 수원	이종원	10,000	대전 유성
이규순	20,000	충북 괴산	이헌재	10,000	대전 유성	이용만	10,000	경기 광명	이종찬	10,000	대전 서구
이종성	10,000	경북 포항	이유재	10,000	대전 유성	이도재	10,000	대전 중구	이종기	10,000	대전 중구
이수평	20,000	대구 북구	이헌재	10,000	서울 양천	이용권	10,000	서울 용산	참판공파중회 10,000 X 3명 = 30,000원		
이화수	50,000	서울 금천	이종업	10,000	대전 중구	이종순	10,000	대전 중구	이총래	10,000	서울 은평
이윤래	10,000	경기 포천	이종국	10,000	충북 청주	이덕재	10,000	충청 계룡	이성래	10,000	전남 영광
이명재	10,000	경북 성주	이희재	10,000	서울 광진	이창재	10,000	대전 대덕	이용만	10,000	전남 영광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3年 9月 1日

<제391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柱 榮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柱 暲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